

아시아 태양전지 업체들, 일본 진출 본격화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이 시스템가격 하락과 정부지원 강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과 중국·대만 기업이 잇따라 일본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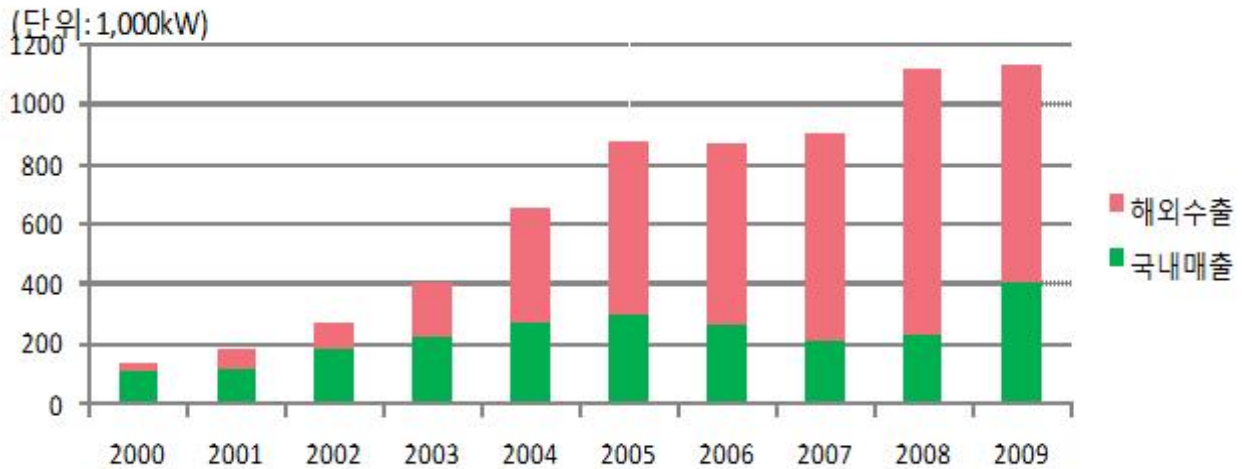
□ 2009년 일본의 태양광발전시장은 정부지원 강화 등으로 급성장

- 일본 정부는 2009년 들어 개인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입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재개(1월)한 데 이어, 전력회사로 하여금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 매입을 의무화하는 신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행(11월)함.

* 매입대상은 태양광, 매입범위는 자가소비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으로 한정됨. 매입기간은 10년, 매입가격은 주택용(10kW 미만) 48엔/kWh. 비주택용 24엔/kWh으로 기존 제도에 비해 약 2배 높게 설정

- 위와 같은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일본의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규모(태양전지 매출액 기준)는 2008년 23만 kW에서 2009년에는 무려 48만 kW(3/4분까지는 41만 kW)로 두 배 이상 확대.(미국의 경우는 2008년의 34만 kW 수준 담보)

<그림 1>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규모 추이



주: 1) 시장규모는 태양전지 매출액으로 판단. 2)2009년은 3/4분기까지의 실적.
 자료: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 현대중공업 · Trinasolar · Motech · Gintech 등 아시아업체들, 일본 진출 러시

- 현대중공업은 2010년 5월 상순에는 일본국내에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본 판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통망 정비에 착수.
- 현대중공업은 일본 사양에 맞게 개발 중인 실내 발전량 체크 모니터 등 주변기기를 태양전지와 함께 판매한다는 계획.
- 한편, 현재 현대중공업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33만 kW 가운데 10% 정도를 일본에서 판매한다는 전략.(2011년 역시 생산능력 50만 kW 중 10% 할당)

〈표 1〉 일본 진출계획의 외국계 태양전지업체 및 일본기업의 생산능력

구분	기업	년간 생산능력(10,000kW)	
		현재	증산계획(실시시기)
외국계 업체	현대중공업(한국)	33	50 (2011년 중)
	Trinasolar(중국)	60	95 (2010년 말)
	Canadian Solar(캐나다)	84	104 (2010년 4월)
	Suntech Power(중국)	110	140 (2010년 중반)
	Motech(대만)	65	100 (2010년 중)
	Gintech(대만)	70	80 (2010년 말)
일본업체	샤프	71	87 (2010년 3월)
	코세라	40	60 (2010년)
	산요전기	34	56.5 (2010년 말)
	미쯔비시전기	22	27 (2010년 말)

자료: 日本經濟新聞

- 2010년 2월 일본 법인을 설립한 중국의 Trinasolar는 2012년에는 생산량의 8%를 일본시장에 판매한다는 전략이고, 주택업체나 리폼회사 등을 상대로 판로를 개척 중.
- 중국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Canadian Solar는 2009년 말에 이미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2만 kW를 판매한다는 목표.
- 대만 기업인 Motech은 2010년 중에 일본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Gintech 역시 일본 진출을 기정 사실화.
- 중국, 대만의 이들 기업은 저렴한 인건비에서 비롯되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세계 태양광발전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에 주력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일본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0.3.12일자)

日経エレクトロニクス(2010.2.8일자)

일본 태양광발전협회(<http://www.jpea.gr.jp>)